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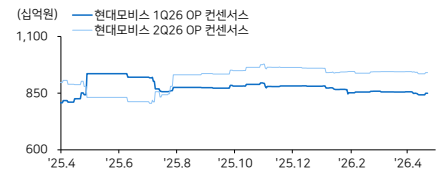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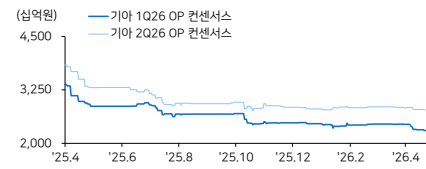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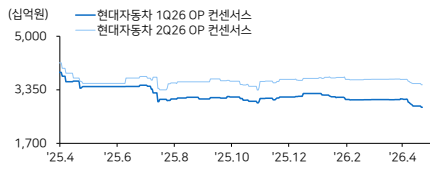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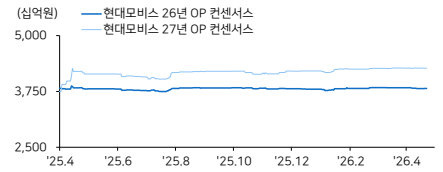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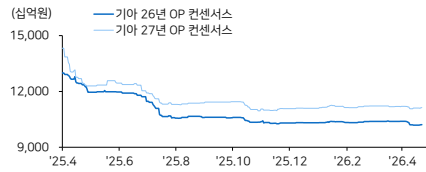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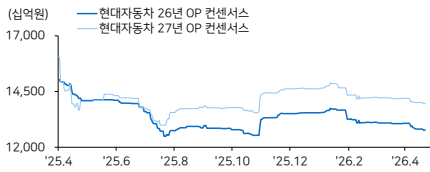
2026.4.27 (월)

자동차/모빌리티 Analyst 김준성 joonsung.kim@meritz.co.kr
RA 배현서 hyeonseo.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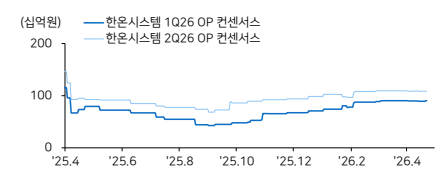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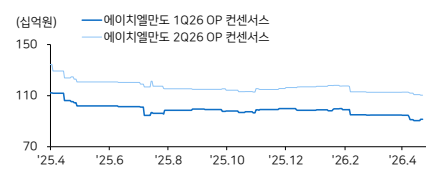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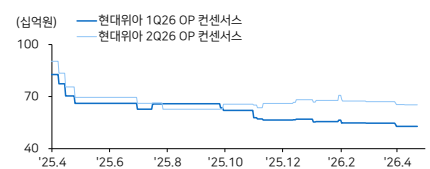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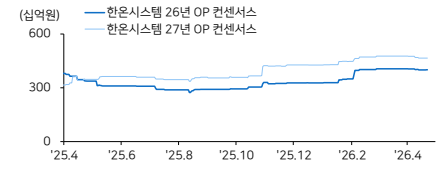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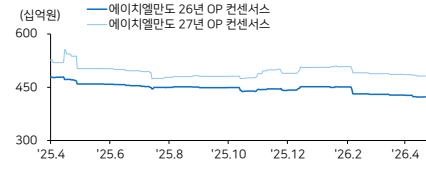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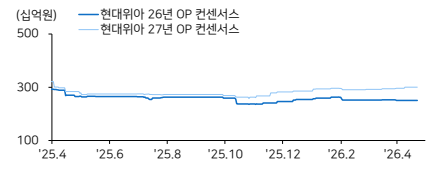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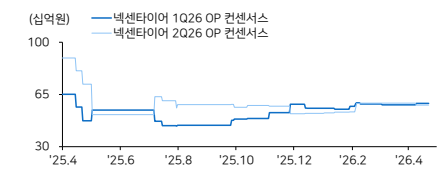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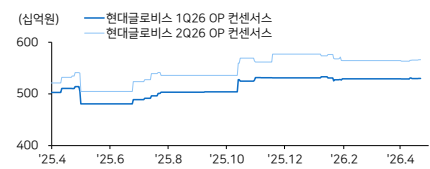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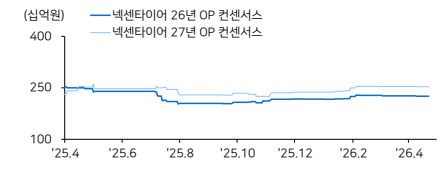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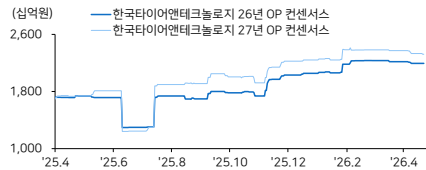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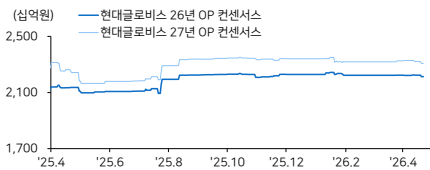
현대자동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현대글로비스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자동차, 북경역 인근 '시 연구거점' 조성...8조원 투자 (아시아경제)

현대자동차의 주요 계열사인 현대차-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현대로템은 'HMG퓨처콤플렉스'라는 범인의 출자증권 취득을 일제히 공시. 서울 송파구 북경역 인근에 조성될 해당 업무시설은 AI, SW 중심의 연구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
<https://han.gl/CwEla>

기아 'SDV 페이카'에 올케 말 공개...로보틱스 투자는 하반기 결정 (뉴스1)

1분기 실적설계회 때 따르면 기아는 자율주행 SDV 양산을 위한 페이카를 올케 말 공개할 계획. 본격적인 양산은 오는 2028년 초가 목표. 로보틱스 생산법인 투자 참여 방침도 재확인했으나, 출자 규모와 시기는 올케 하반기 중 결정할 것이라는 설명
<https://han.gl/pMdYh>

현대차, 아이오닉 V 첫 공개...'우서 재기할 것' (한국경제)

현대차, '2026 베이징 모터쇼'서 중국 양산형 아이오닉 V 모델 최초 공개.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철저한 '중국화' 전략으로 입지를 넓혀겠다는 것. 앞으로 5년간 중국 시장에서 Momenta, CATL 등과 일부 협업해 전동화 모델 20종을 출시할 계획
<https://han.gl/Ros6c>

화웨이, 자율주행에 17조원 쏟아붓는다...주도권 확보 '총력' (한국경제)

Huawei 스마트카 솔루션 사업부의 진위 CEO는 베이징에서 열린 '화웨이 천문 기술 콘퍼런스'에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공개. 자율주행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최대 800억위안(약 17조3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것
<https://han.gl/qWTZk>

Geely's Caocao to deploy thousands of fully customised robotaxis in 2027 (Reuters)

Geely의 차량 호출 부문 회사인 Caocao, 2027년 전 세계적으로 수천 대의 로보택시를 배치할 계획. 인티뷰에 따르면 로보택시 전용 모델 'Eva Cab'의 대규모 인도 및 배치는 2028년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2030년까지 10만대로 확대할 계획
<https://han.gl/Xvwnv>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항목에서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외, 배포 될 수 없습니다.

자율주행 실패한 온 박민우 현대차 사장 '최종 목표는 내재화' (ZDNet)

Auto China에서 진행된 현대차 보도발표회에는 장재훈 부회장, 무노스 사장, 하리 R&D본부장, 박민우 사장 등 그룹 주요 경영진이 참석. 박민우 사장은 "최종 목표는 자율주행 기술을 내재화하는 것이고, 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함
<https://han.gl/Xo6r>

현대차 부스 방문한 중 CATL 회장...장재훈 부회장과 협력 방안 논의 (뉴스1)

Auto China에서 현대차의 중국 전략형 전기차 '아이오닉 V' 공개를 앞두고, CATL의 정위원 회장-BAIC의 장젠웅 동사장 등이 부스를 찾아 장재훈 부회장과 협력을 논의. Momenta의 자오쉬둥 CEO는 공개 행사에 참석하여 연설을 진행
<https://han.gl/L28r9>

Tesla confirms Cybercab with no steering wheel enters production (Teslarati)

Tesla, 스티어링 휠과 페달이 없는 사이버캡이 기가 팩스에서 공식적으로 생산에 들어갔다고 확인. 로보택시와 관련한 완전한 규제 승인 및 충전 인프라 구축과 같은 과정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이번 생산 개시는 강력한 추진력의 신호
<https://han.gl/L28r9>

Xpeng in talks with overseas automakers, eyes new plants abroad (Automotive News)

Xpeng의 허샤오펑 CEO, 자사의 운전자 보조 기술을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하고 중국 외 지역으로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 자동차 제조사들과 잠재적 협력을 논의 중이라고 밝힘. 자사 첨단 주행 시스템에 유럽 기업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함
<https://han.gl/F4KwW>

지리 CTO "중 자율주행, 이미 레벨3 수준" (IT조선)

Geely그룹 CTO, 자사 자율주행 시스템이 이미 L3 수준에 도달했다고 강조. Tesla와 Waymo를 제외하면 "소비자가 직접 소유하고 운전하는 일반 승용차 부문에서 고도화된 자율주행 수요는 현재 중국 시장이 훨씬 더 크고 광범위하다"고 언급
<https://han.gl/LinXC>